

취약가정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

최윤경¹⁾

요약

본 연구는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자료 중 취약가정으로 유형화 한 480 가구를 중심으로 취약가정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비용 현황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취약가정 영유아 자녀는 일반 비취약가정에 비해 개인양육지원 및 사교육 이용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기관 이용률이 더 높았으며, 취약가정내에서 가구특성별로 기관이용과 조부모 지원, 개인사교육 등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과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취약가정의 경우, 전반적으로 조부모의 양육지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개인사교육의 이용률은 비취약가정보다 낮았다.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비용도 취약가정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가운데, 총 보육·교육 비용은 가구소득대비 평균 10.7%로, 다문화가정 6.4%를 제외하고는 비취약가구 12.0%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5개 유형의 취약가정은 보육료·교육비 비용 감면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정부 보육료지원 정책 만족도와 기관서비스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취약가정, 가구 유형,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육아지원 서비스 비용

I. 서론

다양한 가정환경 특성과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발달단계에 의해 영유아기 보육·교육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차별화되어 나타난다. 취약가정내에서도 해당 영유아가 처한 구체적 가정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양육과정을 보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취약가정

* 본 논문은 2010년도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 「아동 가구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과 육구 -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심층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1)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의 자녀 양육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대개의 경우 저소득층의 빈곤에 초점을 두는 등, 사회경제적 자원인 '소득수준'에 근거한 계층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예: Ackerman, Brown, & Izard, 2004a, 2004b; McLoyd, 1990). 그러나 경제적 취약성이라는 단일요인 외에 개별가정이 처한 고유한 생태학적 환경요소와 특성으로 인해 취약성이 가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Garcia Coll et al., 1996). 대표적인 예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가족해체의 증가로 늘어나는 한부모 가정, 그리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구성원을 두어 가족내 돌봄기능에 대한 요구도가 크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과 생활력, 기본적인 자녀양육의 기능을 저해당하는 장애·질환 가정 등 다양한 유형과 양상이 존재한다. 따라서 양적으로 증가하는 취약가정의 비율과 함께 취약가정내에서도 다양한 요구와 어려움을 갖고 있어 그 변이와 구체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 분석은 동일하지 않은 양육과정과 요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가정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과 비용 현황을 특정 가구특성에 근거하여 가정 유형별로 비교함으로써 그 변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09 보육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취약가정의 특성을 유형화 하였고, 유형화한 취약가정의 현재 영유아자녀 양육현황은 어떠한지 가족내 돌봄과 양육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리고 비모성양육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 그 이용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둘째, 양육지원을 받거나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각 취약가정이 지불하는 비용과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구소득 및 지출과 같은 가구경제지표 대비 유아교육·보육의 이용 비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셋째,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에의 인지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육아지원 및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정부의 보육료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 관한 객관적 지표 외에 각 취약가정이 인지하고 체감하는 주관적 지표를 통해 현재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육아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취약가정 지원시 정책적으로 우선 고려해야할 요소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취약가정간의 차이점 및 비형평적 요소 등을 파악하여, 향후 취약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그 간 보육·교육 정책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해 온 취약가정의 보육·교육 지원 정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약가정의 만족도와 요구도는 어떠한지, 또한 취약계층내

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의 수혜에서 저조한 사각지대가 있는지 가구특성별 접근을 통해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내용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2009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자료 중 영유아가 있는 2,459가구에 대한 가구조사 자료와 3,303명의 영유아 개별조사 자료이다(서문희 외, 2009). 이 연구에서는 취약가정을 ① 다문화가정, ② 한부모가정, ③ 농어촌가정, ④ 가구주 질환장애 가정, ⑤ 질환장애아 가정의 5가지로 구분하였으며²⁾, 취약가정 유형에 해당하는 480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류한 취약가정에 해당하는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은 부모 중 한 명이 결혼이민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둘째, 한부모가정은 가족유형에서 한부모 가정으로 응답한 경우, 셋째, 농어촌가정은 가구주의 직업이 농어민인 경우로 하였다. 넷째, 가구주 질환장애 가정은 가구주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로 하였으며, 다섯째, 질환장애아 가정은 최연소자녀가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분류하였다³⁾. 이 연구는 가구특성을 기준으로 취약가정을 유형화하여, 선별된 취약가정의 영유아 자녀 양육의 전반적인 현황과 비용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및 정책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우리나라 취약가정 전반으로의 일반화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현재 육아지원정책이 고유한 특성을 갖는 개별 취약가정에 미치는 영향과 인식에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취약가정 육아지원 정책에 근거가 되는 주요 데이터 제공과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분석에 이용된 종속변인은 아동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이용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리고 정부정책 인지도 및 보육·교육 서비스 만족도이다. 독립변수는 취약가정 5개

2) 이 연구에서 규정하고 분석한 '취약가정'은 본 연구설계에 의해 임의로 분류한 연구대상으로서의 사례로, 사전적 의미의 취약가정과 동일한 의미가 아님을 밝혀둠. '비취약가정'은 상기한 다문화, 한부모, 농어촌, 가구주질환장애, 질환장애아 가정의 취약요건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3) 2개 이상의 취약가정에 중복 해당(56사례)되는 경우, 다문화·한부모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어 한 유형에 속하도록 분류하였음.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외 취약가정의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특성 등이 있다. 5개 취약가정별로 상호 비교하는 형식으로 조사하였으며,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서의 취약가정 집단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변량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기관 이용 만족도와 비용 부담 정도, 정부정책만족도 등에 대해 취약가정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균 비교를 하였다.

2. 취약가정 유형 분포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다문화, 한부모, 농어촌, 가구주질환장애, 질환장애아동 가정의 취약요건에 해당하는 480사례의 취약가정 표집 분포는 <표 1>과 같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 표집된 5개 유형 취약가정의 비율은 전체 영유아 사례중 14.5%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가구주질환장애 가정의 경우가 많았다.

<표 1> 취약가정 유형 분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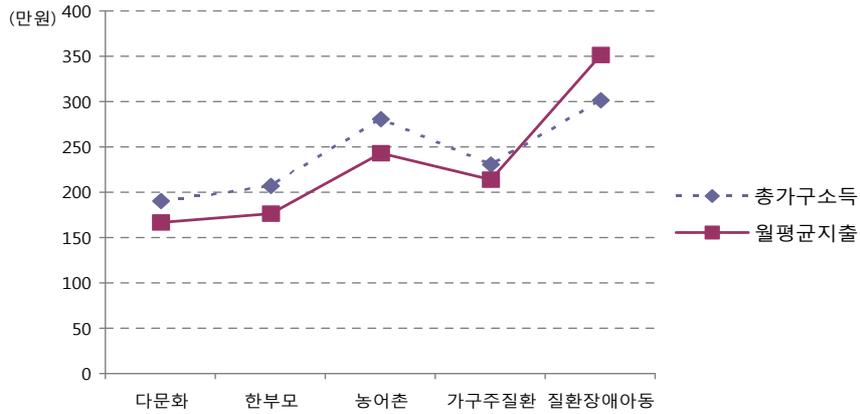
구분	취약 가정						비취약 가정	계
	취약가정 전체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농어촌 가정	가구주 질환 장애아 가정	질환 장애아 가정		
% (수)	14.5 (480)	24.5 (118)	29.5 (142)	10.1 (49)	28.4 (136)	7.5 (36)	85.5 (2,823)	100.0 (3,303)

III. 결과 및 해석

1. 취약가정 유형별 가구특성

가. 경제적 특성

취약가정의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적 요인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09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경제적 요인인 월평균가구소득을 살펴본 결과, 영유아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297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취약가정 전체 평균 224만원, 비취약가정 전체 평균 307만원으로 취약가정의 가구소득이 낮았다. 월 평균가계지출면에서도 취약가정 평균 204만원으로 비취약가정 247만원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취약가정내에서는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정이 가구소득과 가계지출의 측면에서 경제적 취약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취약가정유형별 월가구소득 및 지출

자녀에게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질환장애아 가정은 취약가정내에서 가구소득과 지출면에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소득대비 지출이 큰 적자구조를 갖고 있어, 비취약가구 일반과 비교할 때 평균 가구소득수준은 낮고 지출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장애아 가정이 자녀를 돌보고 재활치료를 하는데 드는 양육비용의 부담이 커 소득대비 지출이 큰 적자규모의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취약가정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구 분	다문화	한부모	농어촌	가구주 질환장애	질환장애 아동	$\chi^2(df)/F$	비취약 가정
월 가구소득 분포							
200만원이하	70.3	69.0	49.0	51.1	30.6	34.45(8)***	34.1
201~500만원	27.1	23.9	40.8	43.8	61.1		54.5
500만원이상	2.5	7.0	10.2	5.1	8.3		1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월평균가구소득	190	207	280	230	302	5.59***	307
월평균지출	167	176	243	214	351	9.03***	245
기초수급자비율	10.2	15.5	-	15.3	2.8	-	0.9
모 취업률	25.4	50.0	56.3	27.9	38.9	165.94(8)***	31.7
(수)	(118)	(142)	(49)	(136)	(36)		(2,823)

주: *p< .05, ***p< .001. (-) 유의성 검증 적용 안 함.

본 조사대상 취약가정의 기초수급자 비율과 월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비율도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정, 가구주질환장애가정의 경제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러나 취약가구별로 월가구소득 200~500만원과 500만원 이상의 비율도 적지 않아 각 취약가구내에서도 경제력의 범위가 다르다. 특히 농어촌가정과 가구주질환가정, 질환장애아 가정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 201~500만원의 중산층 가정이 4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동일한 취약가정의 유형내에서도 경제적 취약성이 동질적이지 않음을, 그리고 소득수준과 지출규모가 취약가정의 취약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모 취업률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 가정과 가구주질환장애 가정을 제외한 한부모, 농어촌의 취약가정에서 비취약가정 모에 비해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약 25% 모가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의 미취업이유로는 가사와 양육에 전념하기 위해(1순위), 자녀를 맡길데가 없어서(2순위)로 취약·비취약 가정 통틀어 공통된 모 미취업 사유로 나타난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율이 다른 취약가정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모 취업의 요구도 대비 구직이 어려운 취약성을 드러냈다.

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조사대상 취약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다문화가정과 농어촌가정의 경우 부의 나이가 평균 41세, 39세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 연령은 다문화가정에서 가장 낮아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원수의 경우, 비취약가구 일반에 비해 취약가정의 가구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체로 3세대 동거의 비율이 높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가정의 경우는 자녀수가 비취약일반과 다른 취약가정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0~만2세 영아자녀를 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3 참조).

거주지역을 살펴본 결과, 읍면지역 거주율이 농어촌가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경우도 약 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학력은 다문화가정과 농어촌가정의 경우 고졸미만의 저학력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그리고 부모 중 특히 부의 저학력 비율이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취약가정의 학력수준이 비취약가정에 비해 낮은 편이며, 취약가정내 부부간 연령 및 학력의 격차가 있었다.

〈표 3〉 취약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세, 명, %

구 분	다문화	한부모	농어촌	가구주 질환장애	질환장애 아동	X ² (df)/F	비취약 가정
부 연령	41.4	33.3	38.8	36.2	35.6	29.62***	35
모 연령	31.3	33.3	35.7	33.0	33.3	5.53***	33
가구원수	4.3	3.8	5.0	4.4	4.5	8.72***	4.1
자녀수	1.7	1.6	2.2	1.9	2.0	8.41***	1.8
3세대가족비율	36.4	-	28.6	17.6	29.7	-	12.2
읍면지역 거주율	25.4	17.7	70.8	17.5	16.7	71.89(8)***	15.3
부학력중졸이하비율	18.1	4.1	16.7	4.5	2.8	91.83(20)***	1.8
모학력중졸이하비율	8.8	2.9	4.2	1.6	-	-	0.4
배우자비율	94.8	-	100.0	94.7	100.0	-	99.9
영아자녀비율	66.1	31.2	49.0	41.9	29.7	36.42(4)***	54.2
모 가구주 비율	3.4	57.0	-	4.4	-	-	0.7
(수)	(118)	(142)	(49)	(136)	(36)		(2,823)

주: (-) 유의성 검증 적용 안 함.

한부모가정의 경우 57%에 해당하는 가정이 어머니가 가구주인 편모가정인 것으로 나타나 편부가정의 비율이 43%로 조사되었다. 다문화가정⁴⁾과 가구주 질환장애가정에서 모 가구주 비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비취약가정 대비 경제적으로 저소득-저지출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취약가정내 소득-지출 규모, 학력 등의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면에서 (부 기준) 만혼으로 인한 부부간 연령의 격차, 저학력이 가구특성 외 취약특성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3세대 가족비율을 보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도 취약가정내 편차가 있어,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장 큰 부부간 연령차, 부모의 저학력, 높은 3세대거주, 그리고 높은 영아자녀비율을 특징으로 하였다.

2. 취약가정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가. 보육·교육 서비스의 유형별 이용

다문화, 한부모, 농어촌, 가구주질환장애, 질환장애아동 가정의 취약요건에 해당하

4) 다문화가정(N=113)의 경우, 모가 결혼이민자인 경우가 112사례(95%)이고 부가 결혼이민자인 경우는 6사례(5%)로 사실상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이 어머니가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온 '다문화가족'에 해당됨.

는 취약가정의 전반적인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1) 기관 보육·교육 서비스, (2)개인양육지원, (3)개인사교육 등에 관한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표 4〉 취약가정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현황 (중복응답)

단위: %

구분	다문화 ⁵⁾	한부모	농어촌	가구주 질환장애	질환 장애아	X ² (df=4)	취약가정 전체	비취약 가정
기관								
어린이집	37.3	66.9	49.0	52.2	61.1	24.02***	53.2	38.1
영아	29.5	65.9	58.3	51.7	27.3	19.37**	46.0	27.2
유아	52.5	67.0	40.0	51.9	76.0	11.59*	58.6	49.1
유치원	16.1	17.7	30.6	19.1	16.7	5.22	19.0	18.7
영아	-	-	4.2	-	-	-	0.4	0.1
유아	47.5	25.8	54.2	33.3	23.1	11.97*	33.6	38.5
반일제이상학원(I)	-	2.1	-	0.7	-	-	0.8	2.5
특기보습학원(II)	1.7	8.5	12.2	5.8	2.8	9.42*	6.0	6.5
지역아동/주민센터	-	-	-	-	5.6	-	0.4	0.8
문화센터 등	-	4.2	-	3.6	5.4	-	2.7	7.0
개인양육지원								
동거조부모	19.5	26.8	20.4	10.2	16.7	12.69*	18.9	7.2
비동거조부모	3.4	12.0	2.1	6.6	11.1	10.01*	7.3	13.8
동거친인척	-	2.8	-	0.7	-	-	1.0	0.5
비동거친인척	-	5.6	-	2.2	5.4	-	2.7	1.7
기타비혈연	0.9	3.5	2.1	0.7	2.8	3.88	1.9	1.5
개인사교육								
육아전문파견인력	-	-	2.1	-	-	-	0.2	0.4
교재교구방문	-	1.4	-	2.9	2.8	-	1.5	3.4
(방문)학습지	7.6	17.6	35.4	19.1	38.9	27.80***	19.0	24.3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 유의성 검증 적용 안 함.

전체적으로 취약가정 영유아기 자녀의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은 혈연·비혈연을 통한 개인양육지원과 개인사교육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기관, 개인양육, 사교육의 세가지 유형을 통틀어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취약가정 전체 평균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조부모 26.2%, 유치원과 방문 학습지가 각 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일연령대 유아기에 국한하여도 어린이집 58.6%, 유치원 33.6%로 (비취약 일반가정에 비해)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취약가정별로 보육·교육 이용률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5) 2011년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 영유아대상 보육·교육 서비스이용 100%비용지원 시행 이전의 자료임.



[그림 2] 취약가정유형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을 비교하면, 영유아기에 걸쳐 비취약가정 대비 취약 가정의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유아기 유치원 이용률에 취약-비취약 가정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오히려 취약가정 유형별로 이용률에 차이가 있어, 어린이집의 경우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영유아기 모두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 질환장애아의 경우 영아기의 이용률은 저조하다가 유아기에 이르러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취약가정내에서 영아기 어린이집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적고, 유아기 유치원 이용률은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취약가정의 영아기 자녀에 대한 기관서비스 이용률과 수요가 비취약가정 대비 큰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취약가정 유형별로 이용률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취약가정의 반일제 학원(I)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고 취약가정내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취약가정과의 이용률 차이는 유의하였다. 시간제 특기 및 보습학원(II)의 이용률은 취약-비취약 가정간 비슷한 수준의 이용률을 보였으나, 취약가정내에 이용률 차이가 있어 농어촌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서 평균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지역아동센터 및 주민센터의 이용률은 질환장애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사설 문화센터의 이용률은 비취약가정보다 낮았다.

셋째, 개인양육지원의 경우 취약가정에서는 동거 조부모(18.9%)의 지원이, 비취약 가정에서는 비동거 조부모(13.8%)의 도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영아기의 의존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가정(38.8%)과 질환장애아

(27.8%) 가정의 동거 및 비동거 조부모 양육지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별로 농어촌과 다문화가정에서는 동거조부모의 지원이, 한부모와 질환장애아 가정에는 비동거 조부모를 포함하여 기타 혈연·비혈연 개인양육지원의 비율이 일정부분 나타났다.

넷째, 개인(사)교육의 이용은 전반적으로 취약가정 이용률이 비취약가정보다 낮은 가운데, (방문) 학습지의 경우 취약가정의 이용률도 일정부분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가정과 질환장애아의 학습지 이용률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의 영유아자녀에 대한 방문학습 형태의 개인교육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개인교육 학습지 이용률이 가장 저조하여 이로 인한 취학전 학습준비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나. 취약가정 유형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및 양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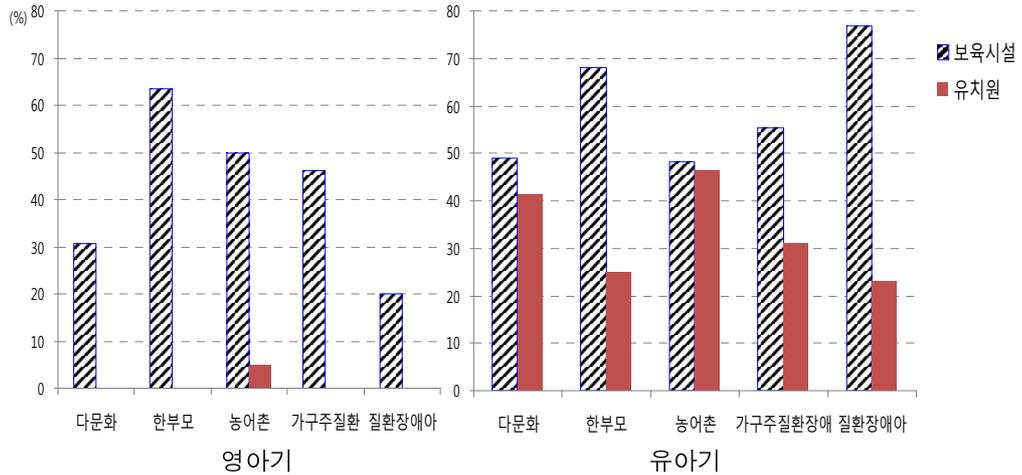
취약가정 특성에 따른 취약가정내 서비스 이용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및 양육 현황을 취약가정 유형별로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보육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미취학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취약가정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09년 조사시점 현재 영아의 비율이 높았던 다문화가정의 표집특성을 고려하여 영·유아로 구분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취약가정내에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그러나 이는 비취약가정의 이용률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 이용률과 영아기 동거조부모의 양육지원은 취약가정 평균대비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0년부터 시행된 다문화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이용 비용의 100% 지원정책의 시행에 배경요인이 된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한부모가정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어린이집 이용률을 보였는데, 이는 영유아 구분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높은 비율이었다. 한부모가정의 유아기 유치원 이용률은 낮았다. 또한 동거 및 비동거 조부모(38.8%)와 학원(10.6%) 이용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한부모 가정의 영유아기 자녀 대상 보육·교육서비스 수요와 양육지원 요구도가 취약가정내에서도 큼을 알 수 있다.

셋째, 농어촌가정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49.0%, 유치원 30.6%로 나타난 가운데, 다른 취약가정 대비 유아기 유치원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보습학원 및 방문학습지의 이용률도 높았다.

넷째, 질환장애아는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높는데 이는 주로 유아기 이용에 기인하며, 상대적으로 유아기 유치원 이용률은 낮게 나타났다. 다른 취약가정에 비해 지역센

터 및 문화센터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질환장애아의 영아기 서비스 이용과, 유아기의 유치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영유아기 취약가정유형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비교

한편, 낮시간에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족내 양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관 이용률이 한부모가정에서 가장 높았으며, 가구주질환장애 가정 아동의 기관이용율도 높은 편이었다. 한부모가정을 제외하고는 영유아기 모에 의한 양육이 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2009년 조사시점 현재 기관 이용률이 저조하고 모에 의한 양육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5> 낮시간 동안 주로 돌보는 사람

단위: %

구분	다문화	한부모	농어촌	가구주 질환장애	질환 장애아	취약가정 전체	비취약 가정
모	83.8	19.7	69.4	58.8	62.2	54.7	70.7
기관에 맡김	3.4	35.9	6.1	22.1	13.5	19.3	13.5
친조부모	6.8	17.6	12.2	11.8	10.8	12.3	5.8
외조부모	0.9	17.6	6.1	5.9	2.7	7.9	6.1
(수)	(117)	(142)	(49)	(136)	(37)	(480)	(2,823)

주: *** p< .001.

요약하면, 어린이집의 경우 취약가정의 자녀 돌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기반특성을 보이긴 하나, 취약가정내의 이용률과 수요에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약특성에 따라 취약가구유형간의 기관이용 동기와 선호도를 파악하여 그 편차를 해소하고 수요도를 파악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고 유치원, 특기보습학원 및 (방문)학습지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농어촌 지역의 요구도 대비 어린이집 또는 기관인프라가 미비한 결과인지 혹은 그들의 고유한 육아지원 서비스 수요인지,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높은 어린이집 이용률이 한부모 가정의 보육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킨 결과인지, 질환장애아의 상대적으로 낮은 영아기 기관이용률과 유아기 유치원 이용률이 취약가정의 수요에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 등,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 보육·교육서비스 이용기관⁶⁾ 및 선택 이유

개별 아동조사 문항을 통해 현재 어떤 설립유형의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다. 농어촌가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취약가정에서 민간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 유아의 사립유치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어촌 가정은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유치원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대체로 국공립 기관(유치원·어린이집)의 이용률이, 특히 국공립 유치원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질환장애아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구주 질환장애가정 아동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낮았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다문화가정과 가구주질환장애아 가정 아동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원 및 복지기관 이용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가정 영유아 대상 육아지원서비스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표 6〉 현재 아이가 다니는 보육·교육 기관 유형

단위: %(명)

구분	다문화	한부모	농어촌	가구주 질환장애	질환 장애아	취약가정	비취약
						전체	가정
어린이집							
국공립	7.9	12.8	19.5	8.0	21.4	12.0	10.2
법인	8.0	12.8	12.2	11.0	14.2	11.5	7.6

6) 앞서 살펴본 <표4> 광의의 보육교육 서비스 분류와는 다른, 기관 설립유형에 근거함.

(표 6 계속)

구분	다문화	한부모	농어촌	가구주 질환장애	질환 장애아	취약가정 전체	비취약 가정
민간	46.0	50.4	19.5	42.0	35.7	42.6	38.3
가정(놀이방)	9.5	-	4.9	11.0	3.6	5.6	6.3
부모협동	-	-	4.9	-	3.6	0.8	0.1
유치원							
국공립	9.5	5.6	26.8	11.0	7.1	10.4	6.6
사립	19.0	14.4	12.2	14.0	14.3	14.8	24.3
학원/기타							
반일제영어	-	-	-	3.0	-	0.8	1.4
반일제이상미술	-	1.6	-	-	-	0.6	2.8
문화센터 등	-	0.8	-	-	-	0.3	-
복지기관							
선교원	-	0.8	-	-	-	0.3	0.9
지역아동/주민센터	-	-	-	-	-	-	-
(수)	(63)	(125)	(41)	(100)	(28)	(357)	(1,601)

주: ** p< .01.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 1순위를 조사한 결과, 집으로부터의 거리와 같은 물리적 인프라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취약가정의 경우는 프로그램 내용과 비용을 그 다음 중요 요소로 응답하였다. 반면 비취약가정은 프로그램 내용과 주변 평판을 그 다음 요소로 응답하였으며, 비용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7〉 현재 이용기관 선택 이유: 1순위

단위: %

구분	취약가정 (355)	비취약가정 (1,693)	X ² (df)
1위	집으로부터 거리 (27.0%)	집으로부터 거리 (22.3%)	
2위	프로그램 (12.1%)	프로그램 (16.8%)	
3위	비용 때문에 (11.5%)	주변의 평판 (11.1%)	39.85(16)**
4위	원장 (9.9%)	원장 (8.5%)	
5위	주변의 평판 (7.6%)	교사 (8.1%)	

주: ** p< .01.

선호하는 보육·교육 기관유형으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국공립 시설의 순으로 나타나 공급면에서 월등히 많은 민간 어린이집의 용이한 이용과 접근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변에서 선호할 수 있는 국공립시설의 수가 많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유치

원의 경우 취약가정은 학교병설 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사립유치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농어촌 가정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였다.

〈표 8〉 선호하는 보육·교육 기관 유형

단위: %(명)

구분	다문화	한부모	농어촌	가구주 질환장애	질환 장애아	취약가정 전체	비취약 가정
어린이집							
국공립	32.2	23.9	26.5	20.6	32.4	25.9	27.2
비영리법인	4.2	6.3	10.2	11.8	13.5	8.3	5.0
민간	31.4	43.7	20.4	37.5	24.3	35.1	31.1
가정	2.5	-	2.0	2.2	2.7	1.7	3.5
(수)	(118)	(142)	(49)	(136)	(37)	(481)	(2,823)
유치원							
학교병설	48.7	19.9	38.3	26.5	25.0	31.0	30.8
공립단설	6.0	9.2	6.4	8.8	8.3	8.0	11.8
사립	17.9	15.6	21.3	25.0	11.1	19.1	31.4
(수)	(63)	(125)	(41)	(100)	(28)	(477)	(2,823)

주: ** p< .01, *** p< .001.

국공립기관 선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통적으로 ‘비용이 저렴해서’와 ‘신뢰가 가서’의 이유가 1, 2 순위로 나타났다. 보육·교육 기관유형에 관계없이 취약가정 부모가 특정유형의 기관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용’과 ‘신뢰도’의 2가지로 동일하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취약가정에 비해 취약가정의 경우가 많았다.

3. 취약가정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비용

가.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비용

취약가정의 영유아자녀에 대한 보육·교육 서비스 비용의 현황을 지불비용과 정부 지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초등이하 자녀에게 지불하는 기관 보육·교육 및 비모성개인양육 지원, 개인(사)교육 전반에 지불하는 보육·교육 비용을 조사한 결과, 다문화가정에서 12만4천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해당 자녀 1인당 비용으로도 월7만2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농어촌가정과 질환장애아의 경우 보육·교육 비용이 각 월 36만6천원, 32만2천원으로 가장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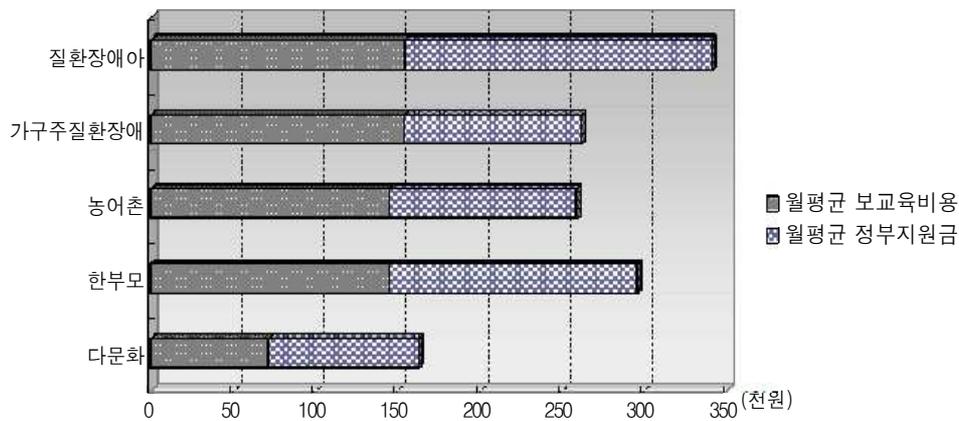
〈표 9〉 보육·교육 비용 현황

단위: 천원, %(명)

구 분	다문화	한부모	농어촌	가구주 질환장애	질환장애 아동	X ² (df)/F	취약가정 전체	비취약 가정
가구 보육·교육 총비용	124	208	366	255	322	10.25***	226	366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용	72	145	145	154	155	4.17**	130	200
자녀 1인당 정부지원금	91	151	114	107	186	8.71***	123	58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6.4	11.7	12.6	12.7	10.8	7.05***	10.7	12.0
가구지출 대비 총비용 비율	7.4	12.8	12.8	12.6	12.8	5.84***	11.4	14.1
기관보육·교육비 감면 가정 비율	88.9	85.7	92.5	75.0	92.9	11.46(4)*	84.6	56.3
기관이용 1인당 감면액	188	196	147	191	250	7.31***	192	168
자녀1인당 보육·교육비 부담률	34.6	36.3	46.0	38.4	35.0	1.71	37.4	50.7
(수)	(118)	(142)	(49)	(136)	(36)		(480)	(2,823)

주: * p< .05, ** p< .01, *** p< .001.

최연소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당 보육·교육비용과 정부지원금을 비교한 결과, 다문화, 한부모, 질환장애아 가정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부모의 지불 비용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농어촌가정과 가구주질환장애 가정의 경우는 지불 비용보다 적은 수준의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약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료 지원이 다문화·한부모 등의 취약요건에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 취약가정유형별 월가구소득 및 지출



[그림 5] 취약가정유형별 월가구소득 및 지출

가구 보육·교육 총비용의 가구소득대비 비율에서는 취약가정이 평균 10.7%로 (범위 6~13%), 다문화가정(6.4%)을 제외하고는 비취약가구(12.0%)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취약가정의 낮은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가계운영의 비용부담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어촌가정과 가구주질환장애 가정의 경우 가구소득대비 부담비중이 비취약가구 일반과 별 차이가 없어 취약가구내에서는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가정의 가구 보육·교육 총비용의 가구소득대비 비율은 취약가정내에서 6%대로 가장 낮았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단위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경우 기관이용에 영유아 자녀 1인당 평균 월11만2천원을 지불하고 약 18만8천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감면 받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이용아동에 대한 평균 비용감면액은 각 가정이 실제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다소 많아 취약가정 영유아 자녀에 대한 기관이용중심의 비용지원은 수요자 지불비용 대비 6~70%대, 평균 62.6%을 이루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부모부담률 평균 37.4%). 자녀1인당 지급되는 정부지원금과 기관이용아동에 대상의 비용감면액은 다문화아동과 질환장애아 가정에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어촌가정의 경우 기관이용에 대한 비용감면액수가 취약가구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기관이용 영유아에 대한 비용감면여부의 수혜율은 8~9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가구주질환장애 가정에 대한 비용감면수혜율과 비용감면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취약가정에 기관이용시 정부가 부담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을 물어본 결과, 90%이상의 정부부담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34.7%로 약 1/3에 해당하는 취약가정 부모들이 무상 보육·교육에의 기대감을 나타냈고, 나머지 2/3의 부모들은 40~80%대의 지원비율에 대해 비교적 고른 응답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구체적 지원 요구에 있어서는 여전히 비용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컸다.

기관이용비용에 한정하지 않고 기관이용과 개인 양육지원 등 서비스이용 전반에 대한 비용을 고려했을 때 월평균 가계지출 대비 몇 %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 물어본 결과, 10% 미만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4.1%, 10%대가 23.4%로 나타났다. 실제 가계지출대비 가구당 지불하는 보육·교육비 비중은 취약가정의 경우 평균 11.4%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취약가정의 보육·교육 총비용은 액수면에서는 비취약가구 평균에 못 미치는 적은 수준이나 가구소득대비 비중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객관적 지표가 아닌 주관적인 보육·교육비 부담은 취약가정의 가계에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4. 취약가정의 보육·교육비용지원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가. 정부의 보육·교육비용 지원 정책 인지도

취약가정의 영유아자녀 양육 및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비용지원에 대해서는 취약가정 전체 평균 인지도 92.1%로 대부분의 취약가정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 민간 영아어린이집의 기본보조금 지원과 만5세 무상, 두자녀 이상 감면에 대해서는 약 50~70% 내외의 인지도를 보였으나, 양육수당에 대한 인지도는 취약가정 전체 평균 16.8%로 낮게 나타났다. 취약가정별로 비교하면 다문화가정의 정부정책인지도가 가장 낮았으며, 질환장애아 가정의 정책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정책의 홍보 및 정보 제공과 안내의 중요성이 제기된다(표 10 참조).

한편, 다문화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양육비 등 경제적 어려움(72.6%), 학습지도(52.5%), 양육방식에 관한 가족내 갈등(44.0%), 언어소통능력(38.2%), 외국인 부모라는 선입견(33.1%),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나 어린이집이 없음(30.5%), 아이의 외모차이로 인한 사회적 적응(12.7%) 등으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자녀 학습지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취약가정 정부지원정책 인지도

단위: %

구분	양육수당	차등비용지원	기본보육료	만5세무상	두자녀감면	장애아무상
다문화	9.3	84.1	49.1	50.9	45.7	24.6
한부모	18.4	97.1	59.8	60.6	69.5	45.0
농어촌	8.2	89.8	68.8	61.2	85.7	42.8
가구주질환경애	19.1	93.4	54.4	52.2	64.8	47.8
질환경애아	25.8	89.2	61.1	80.5	83.3	77.8
전체	16.8	92.1	57.2	59.6	66.3	44.4
X ² (df=8)	21.15***	33.76***	14.06#	15.91**	54.03***	44.45***

주: # p< .1, ** p< .01, *** p< .001.

나. 정부의 보육·교육비용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만족도

취약가정의 현재 이용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기관만족도에 비해 특정항목의 구체적인 기관‘서비스’ 만족도와 도움정도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표 11〉 기관 및 정부정책 만족도

단위: 점

구분	기관	기관	기관서비스	기관서비스	보육교육서비스	보육료지원정책
	만족도 ¹⁾	도움정도 ²⁾	만족도 ³⁾	도움정도 ⁴⁾	비용 부담 정도	만족도
다문화	3.68	3.67	4.48	4.55	3.45	2.92
한부모	3.66	3.70	4.47	4.51	3.44	2.91
농어촌	3.82	3.81	4.78	4.80	3.14	2.65
가구주질환경애	3.69	3.65	4.43	4.48	3.72	2.81
질환경애아	3.70	3.45	4.37	4.39	2.92	2.99
취약가정 전체	3.69	3.68	4.49	4.53	3.45	2.86
비취약가정	3.69	3.62	4.37	4.44	3.63	2.55
F (취약가정내)	0.96	1.64	1.14	1.12	3.05*	0.75
F(취약가정 대비 비취약)	0.13	1.62	2.35*	1.90	-2.77**	5.51***

주 1) 원장, 교사, 주변환경, 비용, 교육내용 등 13개 항목에 대한 5점 척도 만족도 평균

2) 취업/구직, 업무/가사, 육아기술·지식 확대 등 6개 항목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5점 평정 평균

3) 가정통신문 제공, 식단 제공, 자녀발달평가 통지, 부모상담 등 특정 5개 항목의 기관서비스에 대한 5점 척도 만족도 평균

4) 가정통신문 제공, 식단 제공, 자녀발달평가 통지, 부모상담 등 기관서비스 5개 항목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5점 평정 평균

* p< .05, ** p< .01, *** p< .001.

농어촌가정의 기관 및 기관서비스 만족도와 도움정도가 높은 편이나, 취약가정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취약-비취약 가정의 기관 및 기관서비스 만족도와 도움정도를 비교하면 두 집단간에 만족도 체감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 가운데, 구체적 기관서비스 만족도에서 취약가정이 비취약가정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보육·교육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과 정부의 보육료지원정책만족도를 5점 척도 단일항목으로 물어본 결과, 취약가정의 경우 비취약가정에 비해 비용부담정도는 적게, 지원정책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게 조사되었다. 취약가정내에서는 질환장애아 가정의 부담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구주질환장애 가정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 가정의 경우 부담도 평균에 의한 수치는 낮은 편에 속하나, 자녀 기관 이용비용이 ‘전혀 부담이 안된다’는 항목과 ‘매우 부담된다’는 양극에 대한 응답율이 높아 농어촌 가정내 기관이용비용에 대한 부담의 변이가 크며 현재 그 취약성과 요구도가 농어촌 가정내에서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각 가정이 느끼는 주관적 부담도를 고려했을 때에도, (비용 감면수혜율과 미찬가지로) 가구주질환장애 가정의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농어촌 가정의 경우 현재 다양한 요구도와 (비용)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지원요구도가 높고 지원체계에서 빠져있는 농어촌가정내 실질적 취약층 내지는 지원수혜의 사각지대를 선별, 파악하는 육아지원체계가 요구된다 하겠다.

전반적으로 취약가정과 비취약가정을 비교했을때, 비용부담의 체감은 보육·교육비용의 지불을 많이 하는 비취약가정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보육료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취약가정에서 3점 미만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분석 결과, 취약가정의 영유아자녀 보육·교육 이용 현황은 비취약가정 대비 차이가 나는 동질적인 측면과 함께, 취약가정내에서도 가구유형 및 특성에 따라 서비스 이용 및 비용, 구체적인 양육현황, 체감 만족도 등에서 다른 차이가 존재하였다.

첫째, 보육·교육 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발달시기적으로 취약가정의 ‘영아기’ 이용률이, 기관유형별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비취약가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의 취약가정 아동의 서비스 이용율이 저조하였으며, 한부모가정

과 유아기 질환장애아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과 농어촌 가정의 경우 유아기 유치원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농어촌가정의 방문학습지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가장 낮았다. 취약가정의 자원특성, 지역 인프라 및 정부지원체계, 이용 서비스 특성 면에서 취약가정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동거 및 비동거 조부모의 양육지원이 취약가정의 자녀양육에 주요한 조력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육 서비스 비용에 있어 다문화가정의 부담 비용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농어촌 가정은 다양한 소득수준에 의해 평균 부담 비용은 취약가정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평균 순수 보육·교육 비용의 약 60%이상, 총 보육·교육 비용의 약 50%이상 취약가정의 아동에게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약가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율이나, 3세 미만 아동 서비스에 대한 OECD 국가들의 25~30%에 해당하는 부모 부담률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가구 소득대비로는 6~13%의 부담률을 보였다.

셋째, 만족도에 있어 전반적인 기관만족도보다는 구체적인 기관서비스의 효용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비취약가정에 비해 취약가정의 비용부담에 대한 체감도는 낮고 정부 보육료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서비스 이용을 통한 정부의 취약가정 대상 보육·교육료 지원이 비용부담 및 정책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취약가정의 정부 보육료지원정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비용감면과 지원의 만족도, 그리고 기관서비스 이용의 만족도와 그 수혜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영향력과,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감이 관련 변인을 통해 역의 관계로 나타나는 부적 영향력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취약가정의 영유아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정책은 기관서비스 이용의 만족도와 구체적 효용감, 그리고 보육료 감면이 실질적으로 취약가정의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수혜감과 체감이 정부 보육료지원정책의 만족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약가정의 요구도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원설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취약가정내 영유아자녀에 대한 보육·교육비용의 지불 수준과 부담감,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 체감은 소득수준과 같은 전통적인 취약변인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약가정의 '유형', 즉 환경적 요인에 의한 구체적 취약요인과 요구도에 근거한 취약가정에서의 지원 설계는, 소득수준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정책 방향

으로 사료된다. 한편 취약가정내에서도 경제적·비경제적 취약요건에 대응하는 나름의 가족지원체계와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취약가정의 육아지원은 비용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 제공과 내용, 지원방법을 다양화 해 취약가정의 요구 대비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맞춤형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취약가정 유형별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경우, 취약가정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집 이용율과 높은 조부모양육지원율이 다문화가정의 실수요에 근거한 구체적 양육행태의 차이라면, 관련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서문희 외, 2010; 최윤경, 2010) 현재와 같은 기관이용을 통한 지원 외 가족체계지원과 학습지 등의 개인서비스이용권의 지급과 방문서비스의 확대 등, 향후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설계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둘째, 한부모 및 질환장애아 가정의 경우 ‘양·질’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고 지속적인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지원서비스의 제공(내용, 방법, 전달체계)을 통해 자녀양육의 물리적·경제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농어촌가정과 가구주질환가정의 경우 다문화/한부모 등의 취약가정에 비해 영유아자녀 양육의 지원 및 이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농어촌가정내의 변이가 크며, 가구주질환장애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 비용 감면율이 유의하게 낮고 국공립시설 등의 기관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어촌가정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여 서비스 우선필요층을 선별하는 과정이 요구되며, 가구주질환가정 아동에 대한 서비스이용율과 비용지원을 제고를 위해 취약가정지원체계에의 편입이 요구된다 하겠다.

넷째,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 이용률이 낮았으므로, 취약가정별 지원 수준과 방법 등 보육·교육서비스 지원의 다양화와 확대를 통해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제고가 요구된다.

덧붙여 취약가정과 비취약가정을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비취약가정에 대한 보육·교육료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비취약가정이 느끼는 비용부담은 크고 보육·교육 기관만족도 및 수혜감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저출산 대응 및 적극적·보편적 복지로의 정책적 전환을 고려하여, 비취약가정의 비용부담과 낮은 기관만족도를 정책에 반영하는 모든 가장 대상의 보편적 정책설계에 대한 고려가 함께 요구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가구조사.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설동훈·최윤경·김은영·조혜주(2010).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방안 -영유아·초등학생 중도입국자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2010).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육아정책포럼**, 20, 7-17. 육아정책연구소
- Ackerman, B., Brown, E., & Izard, C.(2004a). The relations between contextual risk, earned income, and the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economically disadvantaged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40, 204-216.
- Ackerman, B., Brown, E., & Izard, C.(2004b). The relations between persistent poverty and contextual risk and children's behavior in elementary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40, 367-377.
- Garcia Coll, C., Lamberty, G., Jenkins, R., McAdoo, H. P., Crnic, K., Wasik, B. H., & Garcia, H. V. (1996). An Integrative Model for the Study of Developmental Competencies in Minority Children. *Child Development*, 67, 1891-1914.
-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African American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논문접수 2011년 9월 30일 / 수정본 접수 12월 20일 / 게재승인 12월 21일
- 교신저자: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메일 ykchoi@kicce.re.kr

Abstract

The Usage and Cost of ECEC and Childrearing Services According to the Types of Korean Disadvantaged Families

Choi, Yoon 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understand the divers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ECEC and childrearing service usage and cost in the context of Korean disadvantaged families. The disadvantaged families surveyed in the 2009 national child care study, were classified into five exclusive types of multicultural, single parenthood, families in the rural areas, families with handicapped parents, and families with handicapped child.

The study results have shown that the majority of ECEC and childrearing service use and cost of the Korean disadvantaged families were on the ECEC institutional services of child care center and kindergarten, especially the child care center. Also the uninstitutional intra-familial support of grand-parenting, and the private tutoring of home-study materials, were other major services of disadvantaged families' service use and cost. Also there were some gaps and variations in the financial support of disadvantaged families according to the family types.

Key words: disadvantaged families, family types, ECEC and childrearing service use, ECEC and childrearing service cost